

眞德女王 崩年(654) 空位와 金春秋의 踰年(655) 즉위

徐 榮 敎*

- I. 머리말
- II. 倭使 巨勢稻持가 만난 伊飡 金春秋
- III. 踰月称元法에 가려진 眞德女王 崩年 空位
- IV. 麗濟靺鞨의 침공과 武烈王 踰年 卽位
- V. 맺음말: 시대의 要請을 읽었던 英傑

국문초록

『三國史記』에는 金春秋가 654년 4월 왕위에 즉위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日本書紀』에는 654년 11월 경 金春秋가 新羅王이 아니라 臣下인 伊飡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三國史記』에 眞智王・眞平王・善德女王・眞德女王은 각각 즉위 원년에 上大等을 임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金春秋만 유독 즉위 2년(655) 正月에 그렇게 한 것으로 나와 있다. 武烈王의 踰年卽位(655년)가 남긴 사료상의 흔적으로 보이며, 『日本書紀』와 『三國史記』가 일부 일치·대응되는 부분이다.

654년 11월 경 金春秋가 伊飡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은 新羅 群臣들의 반대로 그의 왕위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반영한다. 金春秋는 무리한 즉위를 시도하지 않았다. 무력을 앞세운 그의 즉위는 毗曇의 亂과

* 中源大學校 韓國學科 敎授 / syk367@naver.com

같은 內亂의 재발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麗濟 두 나라가 분규의 소지를 안고 있는 新羅의 왕위 계승을 지켜보고 있었고, 결국 그해 대대적인 침공을 하여 新羅내정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654년 8월 이후 麗濟靺鞨의 대대적인 포위 공격으로 新羅의 33 개성이 함락되는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金春秋를 왕으로 밀고 있었던 金庾信이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고, 群臣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關川도 왕경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왕위계승문제를 두고 新羅조정이 분열된 현상을 여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세력들과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상태에서 그가 수도를 떠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내분이 외침에 대한 저항력을 갉아먹자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고 나서야 진실을 보게 되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대외적 위기는 群臣들이 金春秋를 王位에 추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655년 正月에 金春秋는 왕위에 올랐다.

◆ 주제어

金春秋, 金庾信, 關川, 唐高宗, 孝德天皇, 持統天皇

I. 머리말

『三國史記』 권5, 태종무열왕 원년 조를 보면 眞德女王이 654년 3월에 죽고 金春秋가 곧이어 踰月(4월) 즉위한 것으로 나와 있다.

“元年(654), 夏四月, 追封王考爲文興大王, 母爲文貞太后. 大赦.”¹⁾

654년 4월 金春秋는 즉위와 동시에 돌아간 父母를 대왕과 태후로 추봉했다. 지금까지 金春秋의 즉위 시점 자체를 의심하는 연구자는 없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金春秋가 金庾信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여 654년 4월에 즉위했다고 보았(던 것 같)다.²⁾

金春秋가 왕위 계승후보자로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그의 즉위에 다수 群臣들의 반대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있던 金春秋가 기록대로 眞德女王 사망 후 1개월 만에 즉위했다고 본다면, 왕위 계승자 결정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金庾信의 무력이 개입된 것이라 여길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이는 최근 주보돈에 의해 재론되었다. “金春秋가 출생이라는 근원적 문제와 함께 그의 할아버지 진지왕이 국민들에 의해 폐위된 탓에 그의 즉위에 대한 반대가 적지 않아 사전 정치 작업 없이 정상적 과정으로 ‘당장’ 즉위가 어려웠다. 眞德女王이 사망하였을 때 사실상 金春秋가 실권자였음에도 국민들이 대신 上大等 關川을 섭정으로 추대한 사실은 그

1) 『三國史記』 권5, 태종무열왕 元年(654년) 4월 조.

2) 韓祐勳, 『韓國通史』, 乙酉文化史, 1969, 85쪽.

李基東, 「제3장 貴族國家의 形成과 發展」, 『韓國史講座』 古代編, 일조각, 1982, 187쪽
金瑛河, 「新羅 中古期の 政治過程試論-中代王權成立의 理解를 위한 前提」, 『泰東古典研究』 4, 1988, 43-44쪽.

李基東, 「제3장 貴族國家의 形成과 發展」, 『韓國史講座』 古代編, 일조각, 1982, 187쪽.

박순교, 『金春秋, 외교의 승부사』, 푸른역사, 2006, 417-426쪽

주보돈, 『金春秋와 그의 사람들』, 지식산업사, 2018, 134쪽.

장원섭, 『新羅 삼국통일 연구』, 학연문화사, 2018, 245쪽.

를 뚜렷이 보여준다. 關川이 국왕이 아닌 섭정으로 추대된 데에는 아직 金春秋가 왕위 계승의 마땅한 적격자로서 전반적인 동의를 얻지 못했음을 뜻하는 사실이다. …끝내 실력으로 즉위하고 말았으나 적지 않은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불안한 정국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³⁾

하지만 『日本書紀』卷30, 持統 3年(689) 5月 癸丑朔 甲戌(22일) 조를 보면, 654년 11월 경 孝德天皇의 부음을 전하기 위해 新羅 왕경을 찾았던 倭使 巨勢稻持가 만난 金春秋는 新羅王이 아니고 翳瀆(2位 伊瀆)의 관위를 가진 臣下였다.⁴⁾ 金春秋가 眞德女王 사망 후 바로 즉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三國史記』가 정확하며 『日本書紀』 기록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해결은 간단하다. 그러나 『日本書紀』 기록이 新羅-倭國 사이의 외교 의례 수행 당사자의 ‘官位’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翳瀆’(2位 伊瀆)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일본서기』의 기록을 믿을 수 없었던 연민수 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서기』 효덕천황 大化 3년 조에 나오는 金春秋의 渡倭 기사를 말한다는 것이다.⁵⁾ 하지만 그해(647년) 金春秋는 翳瀆(2位 伊瀆)이 아니라 大阿瀆(5位)이었다.⁶⁾

岩波書店本 『日本書紀』를 보면 “新羅 조정에 稻持가 奉宣하니 詔를 新羅 측의 대표로서 金春秋가 받들었다”라고 했다.⁷⁾ 坂本太郎 등은 647년 倭國을 방문하여 孝德을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 金春秋가 7년 후 孝德의 별세 부음을 받는 것이 순리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일부 동의한 김현구 등도 金春秋가 孝德天皇의 喪을 알리는 조칙을 직접 받았다면 특수한 관계에 있던 孝德天皇이라는 인물에 대한 예를 표한 것에 불과 한 것으로 보았다.⁸⁾

3) 주보돈, 『金春秋와 그의 사람들』, 지식산업사, 2018, 134쪽.

4) 『日本書紀』 卷30, 持統 3年(689) 5月 癸丑朔甲戌(22일) 조.

5) 연민수 외, 『역주 일본서기』 3, 동북아역사재단, 2014, 555쪽.

6) 『日本書紀』 卷25, 大化 3年(647) 是歲 조 “新羅遣上臣大阿瀆金春秋等.”

7) 坂本太郎 外 校注訳, 『日本書紀』 下, 岩波書店, 1965, 496쪽 頭註17.

8) 김현구·박현숙·우재병·이재석 공저,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 Ⅲ, 일지사, 2004,

그러나 전덕재는 巨勢稻持가 新羅에 도착하였을 때에 金春秋는 왕위에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翳瀋(2位 伊瀋) 金春秋 기록 자체에 착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당시 칙명을 받은 자는 金春秋가 아니라 伊瀋의 관등을 지닌 다른 인물이었는데, 당시 金春秋가 왕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찬의 관등을 지닌 金春秋가 칙명을 받은 것처럼 오해했다는 것이다.⁹⁾

전덕재는 ‘오해’라는 단어 하나로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했다. 그렇지만 倭使 巨勢稻持라는 사람이 金春秋가 王인지 翳瀋(2位 伊瀋)인지 구분도 못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660년 『日本書紀』 기록을 보면 그를 新羅왕으로 명기하고 있다.¹⁰⁾

金春秋의 倭國 체류기간(646년 末-647년)에¹¹⁾ 그곳 관리들과 접촉이 있었고, 巨勢稻持도 그들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다. 倭使 稻持의 孝德天皇 부음에 답하여 新羅 弔使가 654년 12월 오사카의 孝德陵을 방문한 先後 관계도 분명하다.¹²⁾

金春秋는 왕위 계승자로서 결격 사유가 있어 群臣들의 반대로 배제된 상태에서 우여곡절 끝에 추대를 받고서도 3번이나 사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부득이하게 즉위했다. 사정이 이러한데 眞德女王 死去 한 달 후인 654년 4월에 金春秋가 곧장 즉위했다고 한 『三國史記』 기록에는 뭔가 반드시 규명해야 할 문제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聖骨王이 끊기고 眞骨王이 새롭게 등장했다¹³⁾는 사실을 『三

359쪽.

한편 최희준은 천황의 부음을 臣下인 2位 伊瀋이 받았다고 보았다. 崔熙俊, 「新羅外賓 迎接儀禮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8, 71-72쪽

9) 전덕재, 「8세기 新羅의 대일외교와 동아시아 인식」, 『日本學研究』 44輯, 단국대, 2015, 31쪽.

10) 『日本書紀』 卷26, 齊明天皇 6年 9月 癸卯 《5일》 조 “或本云,今年七月十日,大唐蘇定方率船師軍于尾資之津.新羅王春秋智率兵馬軍于怒受利之山,夾擊百濟.相戰三日,陷我王城.同月十三日,始破王城.怒受利山,百濟之東境也.”

11) 山尾幸久, 『古代の朝日關係』, 塙書房, 1989, 392쪽.

12) 『日本書紀』 卷25, 白雉 5年(654) 12月壬寅朔己酉(8일) “葬于大坂磯長陵.”
『日本書紀』 卷25, 白雉 5年(654) 是歲 조 “高麗,百濟,新羅遣使奉弔.”

國史記』가 특기하고 있을 정도로 기존의 통념을 파괴한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단 30일 내에 결정될 수 있었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三國史記』에 어떠한 稱元法(왕의 즉위 시점)이 적용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부식은 『三國史記』 2대 新羅왕인 남해차차웅 즉위년 조에 이와 관련된 상세한 史論을 남겨놓았다.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있었지만¹⁴⁾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다.

필자는 연구 방법으로서 『日本書紀』에 보이는 문제의 기록을 출발의 단초로 삼고, 『三國史記』 新羅本紀 남해차차웅 즉위 조에서 김부식이 밝힌 稱元法 문제를 고찰했다. 그리고 『三國史記』의 편년과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준 중국 사료들을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우선 654년 『日本書紀』에 보이는 翳瀆(2位 伊瀆) 金春秋 기록을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 『三國史記』의 踰月稱元法이 야기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654년 8월 이후 高句麗靺鞨百濟 연합군의 新羅 침공과 33개 성 함락 사건이 金春秋의 즉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고찰해 보았다.

II. 倭使 巨勢稻持가 만난 伊瀆 金春秋

金春秋의 즉위 사정을 전하는 『三國史記』 권5, 진덕왕 8년(654) 3월 조 기록을 보자.

진덕왕이 죽자 群臣들이 이찬 關川에게 섭정을 청하였으나 關川이 굳이 사양하면서 말하였다. “저는 늙고 이렇다 할 덕행이 없습니다. 지금 덕망이 높기는 春秋公 만한 이가 없으니, 실로 그는 世上을 구제할 英傑입니다.” 마침내 그를(춘추) 받들어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 세 번 사양(三讓)하다가 마지못해

13) 『三國史記』 卷5, 眞德女王 8年 조 “國人謂始祖赫居世至眞德二十八王, 謂之聖骨 自武烈至永王, 謂之眞骨.”

14) 이강래, 「『三國史記』와 『삼국유사』의 왕대력 비교 연구」, 『한국사학보』 21, 2005,

왕위에 올랐다.¹⁵⁾

위의 기록은 群臣들의 闕川에 대한 攝政 추대(金春秋는 왕위계승 후보자에서 배제)→闕川의 고사와 金春秋 추천→金春秋 三讓 후에 왕으로 즉위 등의 과정이 보인다. 攝政을 제의받은 闕川이 그것을 고사하면서 곧장 金春秋를 王으로 추천했다.

여기에는 논리적 결함이 보인다. 金春秋를 왕위 계승자에서 배제한 群臣들이 闕川을 섭정에 추대했는데, 闕川이 섭정직을 고사하면서 金春秋를 王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며, 그 자리에서 거론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위의 기록이 모든 것이 결판이 나고 일괄 정리된 결과만을 전하고 있는 압축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은 654년 3월 金春秋가 新羅 조정에서 외교권과 군사권을 소유한 실력자였는데도 왕위계승 후보자에서 제외된 것이다. 마지막 사건은 群臣들이 金春秋를 국왕으로 추대했다는 것이다.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적지 않은 사연들이 있었을 것이다. 金春秋의 즉위에 반대했던 다수 群臣들이 그를 新羅國王으로 3번이나 추대하는 變節者가 되기 위에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¹⁶⁾ 언급한 바와 같이 654년 11월경까지 金春秋는 新羅왕으로 즉위하지 않았던 것 같다.

土師宿禰根麻呂에 명하여 新羅弔使 級滄 金道那 등에게 詔를 내리기를 “太正官 卿 등이 칙명을 받들어 (지통천황) 2년(688)에 田中朝臣法麿 등을 (新羅에) 보내 大行天皇(천무천황)의 喪을 알렸다. 당시 新羅가 말하기를 ‘新羅의 奉勅人은 원래 蘇判의 位(3위)에 있는 자를 썼다. 이제 다시 그렇게 하려고 한

15) 『三國史記』 권5, 진덕왕 8년 3월 조. “及眞德薨, 群臣請闕川伊滄攝政. 闕川固讓曰: “臣老矣, 無德行可稱. 今之德望崇重, 莫若春秋公, 實可謂 濟世英傑矣.” 遂奉爲王, 春秋三讓, 不得已而就位.

16) 闕川이 섭정직을 고사하자, 귀족들이 곧장 金春秋에게 굴종했다는 견해도 있다. 박순교, 『金春秋, 외교의 승부사』, 푸른역사, 2006, 417-426쪽.

다.’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法麻呂 등이 (천무)천황의 죽음을 알리는 조서를 선포하지 못하였다. 전에 일을 말하자면, 옛날 難波宮治天下天皇 崩時에 巨勢稻持 등을 보내 喪日을 알렸다. 그때 翳瀨(2位 伊瀨) 金春秋가 勅을 받들었다. 그런데 蘇判으로 하여금 勅命을 받들게 하는 것은 이전의 일에 어긋난다. 또 近江宮治天下天皇(천지천황) 崩時에 (新羅가) 一吉瀨 金薩儒 등을 보내 弔問하였다. 그런데 지금 級瀨를 보내 조문하니 이 역시 전례의 일에 어긋난다.…¹⁷⁾ 그러므로 調賦와 따로 바친 것들은 모두 封해 돌려보낸다. …너 (新羅사신)道那 등은 이제 勅命을 받들어 너희 (神文)王에게 전하라”고 하였다.

689년 5월 新羅의 弔使 級瀨 金道那 등이 일본을 찾았다. 持統天皇의 남편인 天武天皇의 喪을 조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持統이 과거의 일을 상기하면서 新羅의 외교 의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1년 전인 688년 일본은 新羅에 天武의 죽음을 알리는 法麻呂 등을 사절로 보냈는데 蘇判의 位(3위)를 가진 사람이 勅을 받으려고 해서 격에 맞지 않아 天武의 죽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그 근거로 654년 10월 10일에 難波宮治天下天皇이 돌아가자, 巨勢稻持 등을 新羅에 보내 喪을 알렸는데 翳瀨(2位 伊瀨)의 관위를 가진 金春秋가 勅을 받았다는 점을 들었다. 35년 전에 부음을 받은 사람은 翳瀨(2位 伊瀨) 관위였는데 688년에 그보다 낮은 蘇判(3位)이 그렇게 한 것은 缺禮라는 것이다.

金春秋의 관등 翳瀨는 伊瀨(2位)이 확실하다.¹⁸⁾ 648년 그가 入唐하여 唐太宗을 만날 당시 3단계 뛰어 伊瀨으로 진급한 상태였다.¹⁹⁾ 難波宮治

17) 『日本書紀』卷30, 持統 3年(689) 5月 癸丑朔甲戌(22일) “命土師宿禰根麻呂, 詔新羅弔使級瀨金道那等曰, 太正官卿等奉勅奉宣, 二年遣田中朝臣法鷹等, 相告大行天皇喪, 時新羅言, 新羅奉勅人者元來用蘇判位, 今將復爾, 由是法麻呂等不得奉宣赴告之詔, 若言前事者, 在昔難波宮治天下天皇(효덕천황)崩時(654년 10월), 遣巨勢稻持等(新羅에)告喪之日, 翳瀨(이찬)金春秋奉勅, 而言用蘇判奉勅, 卽違前事也, 又於近江宮治天下天皇崩時, 遣一吉瀨金薩儒等奉弔, 而今以級瀨奉弔, 亦違前事, …是故調賦與別獻並封以還之, …汝道那等奉斯所勅, 奉宣汝王.”

18) 小島憲之 外 校注『日本書紀』3, 小學館, 1998, 493쪽 頭註 2.

19) 『舊唐書』권199, 동이 新羅전 “(貞觀 648) 二十二年 真德遣其弟國相 伊贊干金春秋及其子文王來朝 詔授春秋爲特進 文王爲左武衛將軍 春秋請詣國學觀釋奠及講論

天下天皇은 孝德天皇이다.²⁰⁾ 그는 654년 10월 10일에 사망하였다.²¹⁾ 그때 부음을 듣고 新羅를 찾은 巨勢稻持는 孝德天皇朝의 左大臣인 巨勢德陀의 친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²²⁾

654년 新羅가 麗濟의 양면 공격을 받던 어려운 시절에는 일본에 대해 극진한 외교의례를 행하다가, 689년 안정되자 태도가 바뀌었다고 꼬집었던 것 같다. 新羅弔使 級漣 金道那는 귀국하여 일본 측의 이러한 향의를 新羅왕에게 전했을 것으로 보인다(“奉宣汝王”). 그것은 神文王에 대한 持統의 질책이었다. 과거에 너의 할아버지인 伊瀦 金春秋가 직접 나와서 孝德天皇의 부음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무례하게 굴고 있다는 것이다.

羅唐戰爭(670-676) 이후 新羅와 唐의 관계가 점차 호전되면서, 이와 반비례하여 新羅와 일본의 관계가 점점 소원하게 된다. 689년 持統이 新羅 외교사절의 官位를 문제 삼은 이 사건이 그 출발점이었다.²³⁾

持統天皇의 명령으로 이러한 향의성 글을 작성한 실무자 土師宿禰根麻呂는 근거 기록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故典과 相違한 新羅當국의 외교의례를 糾彈하기 위해서 根麻呂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했다.²⁴⁾ 689년 6월 29일 根麻呂는 藤原不比等(『日本書紀』 편찬 책임자) 등과 함께 刑部省 判事に 임명되었다.²⁵⁾ 根麻呂는 근거를 찾아 앞

太宗因賜以所制溫湯及晉祠碑并新撰晉書 將歸國 令三品以上宴餞之 優禮甚稱.”
『三國史記』 권5, 진덕왕 2년(648) “遣伊瀦金春秋及其子文王朝, 唐太宗遣光祿卿柳亨郊勞之.”

20) 연민수 외, 『역주 일본서기』 3, 동북아역사재단, 2014, 555쪽.

21) 『日本書紀』 卷25, 白雉 5年(654) 10月 壬子(10日)“天皇崩于正寢.”

22) 『日本書紀』 卷25, 大化 5年(649) 4月 甲午(20일) “於小紫巨勢德陀古臣授大紫爲左大臣.”

23) 윤선태, 「752년 대일교역과 買新羅物解」, 『역사와 현실』 24, 1997, 58쪽.

24) 川崎 晃, 「藤原不比等-その前半生について-」(三田古代史研究会編)『法制と社会の古代史』慶應義塾大学出版会、2015, 158쪽 참조. 根麻呂의 아들 甥은 不比等이 주도한 大宝律令(700) 편찬에 참여하였다. 손자는 土師宇庭이고 증손 菅原古人的 증손자가 그 유명한 菅原道真(845-903)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일본조정의 문한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25) 『日本書紀』 卷30, 持統 3年(689) 2月 己酉(26일) “以淨廣肆竹田王.直廣肆土師宿禰

뒤를 따지는 法官적 文士였다.²⁶⁾ 그 시기 일본조정에서는 史書 편찬을 위해 상당량의 사료가 집적되어 있었다.²⁷⁾

654년 伊瀨 金春秋 문제에 관한 小島憲之의 지적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紀年에는 當年稱元法(前王이 죽은 그해에 元年을 칭하는)과 翌年稱元法(다음해 元年을 칭하는)이 있는데, 『日本書紀』의 記載가 정확하다면, 金春秋의 즉위는 翌年(655)이 아닐까 한다.”²⁸⁾ 當年 稱元法은 踰月稱元法이며, 翌年 稱元法은 踰年 稱元法이다.

『三國史記』의 저자 金富軾은 新羅 2대 남해차차웅의 왕위계승 조에 稱元法에 대해 상세한 언급을 하고 있다.

南解次次雄이 왕위에 올랐다.… (남해차차웅) 그는 혁거세의 적자이다. 그는 체격이 장대하고 성품이 침착하였으며 지략이 많았다. 어머니는 알영부인이며, 왕비는 운제부인[아루 부인이라고도 한다.]이다. 그는 아버지를 뒤이어 왕위에 올랐다. 이 해를 원년(踰月稱元法·當年 稱元法)으로 하였다.

왕이 왕위에 오른 다음 해(翌年)를 원년(稱元法)이라고 하는 법도는 「春秋」(孔子가 편찬한 노나라 역사 편년체)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는 절대적인 선왕의 법도이다. 「伊訓」(書經의 편목)에는 “성탕이 죽으니 太甲 원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正義」에는 “成湯(은나라 건국 태조)이 죽은 그 해가 곧 태갑 원년이다”라는 기록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孟子」에는 “湯이 죽고, 태정이 아직 왕위에 오르지 못한 채 외병이 2년이요, 중임이 4년이였다”라고

根鷹,大宅朝臣鷹,藤原朝臣史,務大肆當麻真人櫻井,穗積朝臣山守,中臣朝臣臣鷹,巨勢朝臣多益須,大三輪朝臣安鷹,爲判事.”土師宿禰根鷹의 직장 후배인 巨勢多益須의 從祖父가 孝德天皇대 左大臣 巨勢德陀였다. 多益須과 巨勢稻持도 같은 혈족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26) 川崎 晃, 앞의 글, 2015, 158-161쪽 참조.

27) 天武天皇代부터「記紀」편찬의 자료적 토대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었다. 『日本書紀』卷29, 天武天皇 10年(681) 3月 丙戌 詔“天皇御于大極殿,以詔川嶋皇子.忍壁皇子.廣瀨王.竹田王.桑田王.三野王.大錦下上毛野君三千.小錦中忌部連子首.小錦下阿曇連稻敷.難波連大形.大山上中臣連大嶋.大山下平群臣子首令記定帝妃及上古諸事.大嶋.子首親執筆以錄焉.”

朱甫嗽,『日本書紀』의 편찬배경과 任那日本府設의 成立, 『韓國古代史研究』 15, 1999, 18-20쪽.

28) 小島憲之 外 校注訳, 『日本書紀』 3, 小學館 1998, 494쪽 頭註 2.

기록되어 있는데, 『尙書』에는 이 기록이 빠져 있고, 『正義』에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이 잘못되어있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임금의 즉위하면 그 달을 넘긴 다음 달을 즉위 원년(踰月稱元)이라고 일컫기도 했고, 혹은 그 해를 넘긴 다음 해를 즉위 원년(踰年稱元)이라고 했다”라고 말한다. 즉위한 달을 넘기고 나서 원년이라고 부른 경우로는 “성탕이 죽으니 태갑 원년이라 하였다”는 기록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孟子』에서 말한 “태정이 아직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다”라고 한 것은 태정이 아직 왕위에 오르지 못한 채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외병이 2년, 중임이 4년이라”고 한 것은 태정의 아들인 태갑의 두 형이 태어난 지 2년 혹은 4년 만에 죽은 것을 말한다. 이리하여 태갑이 탕의 뒤를 이을 수 있었던 것이다. 『史記』에서 이를 중임과 외병의 두 임금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전자(해를 넘겨 원년을 칭하는 踰年 稱元하는 『春秋』論法)에 의하면 선왕이 죽은 해를 즉위 원년이라 불렀으니 이는 옳지 않으며, 후자(즉위년 稱元 『尙書』論法)에 의하면 商나라 백성의 예절에 맞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⁹⁾

위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春秋』에 의거한다면 踰月 稱元法이 잘못이고, 踰年 稱元法이 정당하지만, 『春秋』 이전에 지어진 『尙書』 「伊訓」篇에서 踰月稱元法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三國史記』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김부식은 자신이 『三國史記』에 踰月稱元法을 적용하는 것을 정당화했다.³⁰⁾

29) 『三國史記』 권1, 남해차차웅 즉위년 조 “南解次次雄立, …赫居世嫡子也. 身長大, 性沈厚, 多智略. 母闕英夫人, 妃雲帝夫人.[一云阿婁夫人.]繼父即位稱元. 論曰: 人君即位, 踰年稱元, 其法詳於『春秋』, 此先王不刊之典也. 『伊訓』曰: “成湯既沒, 大甲元年.” 『正義』曰: “成湯既沒, 其歲即大甲元年. 然『孟子』曰: “湯崩, 大丁未立, 外丙二年, 仲壬四年. 則疑若『尙書』之脫簡, 而『正義』之誤說也, 或曰: 古者, 人君即位, 或踰月而稱元年, 或踰年而稱元年. 踰月而稱元者, 成湯既沒大甲元年, 是也. 『孟子』云: 大丁未立者, 謂大丁未立而死也. 外丙二年, 仲壬四年者, 皆謂大丁之子大甲二兄, 或生二年, 或生四年而死, 太甲所以得繼湯耳. 『史記』便謂此仲壬外丙爲二君, 誤也. 由前, 則以先君終年, 即位稱元, 非是. 由後, 則可謂得商人之禮者矣.”

30) 鄭求福, 「高麗時代 史學史 研究」,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9-10쪽.
정구복外, 『역주三國史記』 3(주석편 上),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29-31쪽 註 63-78.

Ⅲ. 『三國史記』 踰月称元法에 가려진 眞德女王 崩年(654) 空位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의 왕대력을 비교 검토 · 고증했던 이강래는 『三國史記』 권1, 남해차차웅 즉위년 조에 보이는 金富軾 史論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언급을 했다.

김부식은 우선 『春秋』를 들어 踰年 칭원의 당위를 인정하였지만 굳이 어 그에 대한 구체적 반증으로 『尙書』를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논의는 『尙書』의 기록에 대한 다기한 해석들이다. 商나라 太甲의 즉위를 둘러싼 논쟁은 일찍부터 반복되었다. 『三國史記』가 편찬되던 當代 宋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다. 3차례나 宋나라를 다녀온 김부식은 이러한 논쟁을 잘 알고 있었고, 『三國史記』의 왕대력을 즉위년 称元法(踰月称元法)에 따라 정리하기 위한 예비적 원칙론으로서 長文의 사론은 필요했던 것이다. 『三國史記』의 왕대력은 왕칭이나 称元法의 준칙을 달리하고 있는 다종의 왕대력 자료를 바탕으로 ‘조정’된 것이다.³¹⁾

이강래에 의해 『三國史記』 찬술 당시 北宋에서 벌어졌던 踰月 즉위 · 踰年 즉위 양자의 정당성 문제에 대한 논쟁이 伊訓·孔子·孟子·司馬遷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매우 뿌리 깊은 것이었고, 김부식이 이를 염두에 두고 踰月称元法을 선택하여 『三國史記』에 적용했던 사실의 전모가 드러났다.

『三國史記』는 踰月칭원법을 일괄 강제했다. 그 결과 원전의 사실과 시점이 변용된 부분이 생겨났다. 踰年 칭원의 편년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가 분명히 있었지만, 김부식의 경직된 원칙의 준수로 말미암아 왜곡되는 현상들이 종종 보이고 있다.³²⁾

모든 것을 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新羅에서 踰月 즉위를 했던 왕들도 있었을 것이고, 형편에 따라 踰年 즉위를 했던 왕들도 존재했을 것

31) 이강래 옮김, 『三國史記』 I 한길사, 1998, 68쪽 註10.

이강래, 「『三國史記』와 『삼국유사』의 왕대력 비교 연구」, 『한국사학보』 21, 2005, 92-93쪽.

32) 이강래, 위의 논문, 2005, 49-50쪽, 88쪽, 참조.

이다. 또한 국왕이 정당한 後嗣를 남기지 못하고 돌아갈 경우 왕위계승자 결정에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했을 것이다.

소지왕 死後 만 3년의 空位 기간이 금석문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1989년 <냉수리비>가 발견된 이후 지증왕의 집권과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 碑에서 지증왕을 ‘至都盧葛文王’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그가 즉위 이전에 갈문왕을 역임한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건립시기가 503년 9월이라는 것이 문제였다. 503년은 『三國史記』의 기년으로 지증마립간 4년인데, 그가 마립간을 칭하지 못하고 갈문왕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이 碑의 발견으로 소지왕이 죽은 500년 11월부터 지도로 갈문왕이 즉위한 503년 10월까지의 만 3년의 ‘空位時期’가 역사의 수면으로 드러났다.³³⁾

『三國史記』의 踰月称元法 적용 때문에 지증왕의 즉위시점이 소지왕 死去年月인 500년 11월 다음 달로 앞당겨진 것이 확실하다. 여기서 654년의 정치상황이 유력한 왕위 계승권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500년 지증왕 때와 공통점이 있다고 본 윤진석의 지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500년 소지왕과 654년 眞德女王이 돌아갔을 때 눌지왕계와 聖骨이 소멸되어 정당한 왕위 계승자가 사라졌다는 상황이 거의 유사하다.³⁴⁾ 金春秋의 경우를 보자.

(태종무열왕) 元年(654) 여름 4월, 작고한 왕의 부친을 문흥대왕, 어머니를 문정태후로 추증하였다. 대사령을 내렸다.³⁵⁾

金春秋(무열왕)가 돌아간 父母를 왕·태비로 추증한 이 기록은 김부식의 踰月称元法 준수에 의해 654년 4월로 앞당겨진 시간자리 매김은 아닐까.

33) 朱甫墩, 「迎日冷水里新羅碑에 대한 基礎的 檢討」, 『新羅文化』 6, 1989, 72-74쪽
윤진석, 「新羅 至都盧葛文王의 ‘攝政」, 『韓國古代史研究』 55, 2009, 95쪽.

34) 윤진석, 위의 논문, 2009와 같음.

35) 『三國史記』 권5, 태종무열왕 元年(654년) 4월 “元年, 夏四月, 追封王考爲文興大王, 母爲文貞太后. 大赦.”

2년(655) 봄 正月, 이찬 금강을 上大等으로, 파진찬 문충을 중시로 임명하였다. 3월… 맏아들 법민을 太子로 세우고, 서자인 문왕을 伊瀆, 노자를 海瀆, 인태를 角瀆, 지경과 개원을 각각 伊瀆으로 임명하였다.³⁶⁾

무열왕 2년 정월에 上大等 임명 등 중요인사가 단행되었고, 3월에 자신의 맏아들 法敏을 태자로 세우고 3남 文王 이후 4명의 아들들을 각각 角干(1位)·伊瀆(2位)·波珍瀆(3位)에 임명했다.

여기서 법흥왕 18년(531)에 설치된 上大等은³⁷⁾ 기록의 상실로 짐작되는 진흥왕의 경우를 빼놓고는 예외 없이 왕위 교체(계승)와 때를 같이 하여 임명되었다고 하는 이기백의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眞智王이 즉위하자 그의 元年에 居柒夫가 상대등에 임명되었고, 眞平王이 즉위하자 그의 元年에 弩里夫가 상대등에 올랐다. 眞平王의 뒤를 이어 善德女王이 즉위하자 元年에 摠持國政하게 된 乙祭가 상대등에 임명된 것으로 추측되며, 眞德女王이 즉위하자 그의 元年에 關川이 상대등으로 임명되었던 것이다.³⁸⁾

金春秋 이전 중고기의 왕들은 즉위 원년에 상대등을 임명했다. 그런데 왜 유독 金春秋만이 즉위 2년(655)에 상대등을 임명했다는 말인가. 이는 金春秋의 踰年 즉위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眞德女王이 죽고 10개월 간 空位였고, 조정을 이끌어갈 내각이 출범한 655년 正月에 金春秋가 즉위했던 것으로 보인다.

36) 『三國史記』 권5, 태종무열왕 2년(655년) 正月 “二年, 春正月, 拜伊瀆<金剛>爲上大等, 波珍瀆<文忠>爲中侍.” 三月…立元子法敏爲太子, 庶子文王爲伊瀆, 老且爲海瀆, 仁泰爲角瀆, 智鏡愷元各爲伊瀆.”

37) 『三國史記』 권4, 법흥왕 18년 春 3월 조 “命有司修理隄防. 夏四月, 拜伊瀆哲夫爲上大等, 摠知國事. 上大等官, 始於此, 如今之宰相.”

38) 『三國史記』 권4, 진지왕 元年 조 “以伊瀆居柒夫爲上大等, 委以國事.”

『三國史記』 권4, 진평왕 元年 8월 조 “以伊瀆弩里夫爲上大等.”

『三國史記』 권5, 선덕여왕 元年 2월 조 “以大臣乙祭摠持國政.”

『三國史記』 권5, 진덕여왕 元年 2월 조 “拜伊瀆關川爲上大等.”

李基白, 「上大等考」, 『歷史學報』 19, 1962 : 『新羅 政治社會史 研究』, 일조각, 1974, 97쪽.

그렇지만 필자의 이러한 생각과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기록이 있다. 『冊府元龜』 卷964, 外臣部·封冊 第2를 보자.

永徽 5年(654) 閏5월에 新羅女王 金眞德이 죽어서 그 弟 國相 金春秋를 新羅王으로 삼아 眞德의 位를 계승하게 하고, 開府儀同三司를 내리고 樂浪郡王에 봉하고 遣使持節하여 禮를 갖추어 冊命하게 하였다.³⁹⁾

654년 3월 眞德女王이 죽자 金春秋는 곧장 唐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唐太宗의 昭陵에 그녀의 석상이 이미 세워져 있었고, 이제 죽어서 영원히 그의 신하가 될 터였다.⁴⁰⁾ 부음을 접한 唐高宗은 654년 윤5월에 곧장 新羅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金春秋를 新羅王으로 冊命했다.⁴¹⁾

『三國史記』에는 같은 해 5월에 唐使 張文收가 新羅에 도착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중국 측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 長安을 떠나 新羅 왕경에 도착하는 데는 3달 정도가 소요된다. 그해 8월경 唐使가 新羅 왕경에 도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기록은 金春秋 踰月즉위(654년 4월)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新羅에서 새로운 왕을 결정한 후에 중국 황제가 追認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부결정과 冊立이 정상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역대 어느 중국왕조보다 급속한 대외팽창을 했던 시기 唐의 冊立을 주인으로 볼 수 없는 사례가 많다. 唐은 주변 여러 나라의 왕위 계승에 적극 개입하고 있었고, 唐太宗과 唐高宗시기에 특히 그러했다. 두 황제 때에 주변 국가 왕에 대한 冊立은 주인이라기보다 親唐의인 인사를 심는 작업이었다.

39) 『冊府元龜』 卷964, 外臣部·封冊2 “永徽五年(654) 閏五月新羅女王金眞德卒以其弟國相金春秋爲新羅王繼眞德之位 仍拜開府儀同三司封樂浪郡王 遣使持節備禮冊命.”

40) 拜根興, 「新羅 眞德女王石像 몸통 잔여와 대석 銘文의 발견에 대한 일고찰」, 『新羅史學報』 7, 2006. 17-38쪽 참조.

41) 『唐會要』 卷95, 新羅傳 (永徽)五年(654) “眞德卒.高宗爲舉哀於永光門.使太常卿張文收持節弔祭之.贈開府儀同三司.仍賜綾綵二百段.詔其子春秋嗣位.”

가령 635년 唐太宗은 吐谷渾을 침공하여 그 왕 慕容伏允이 세운 太子를 제거하고, 그의 다른 아들 順을 세웠다. 얼마 후 親唐의인 順이 동포들에게 제거되자 唐은 재빨리 順의 아들 諾曷鉢을 토욕혼왕으로 冊立하고 군사를 보내 보호하였다.⁴²⁾ 실크로드의 하나인 青海路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646년 唐太宗은 서역의 오아시스 국가인 龜茲를 침공하여 그 왕 訶黎布失畢을 사로잡아 끌고 와서 京師의 宗廟社稷에 받치고, 그 동생 葉護를 왕으로 세웠다. 650년에 가서 西突厥이 재등장하자 唐高宗은 訶黎布失畢를 귀환시켜 龜茲王으로 復位시켰다.⁴³⁾

649년 唐太宗이 사망하자 그 이듬해에 阿史那賀魯가 沙鉢羅可汗으로 自位하고, 西突厥을 재통일했다. 655년 11월 서둘릴 阿史那頡苾達度設이 阿史那賀魯에 반기를 들고 唐高宗에게 원조를 요청하자, 황제가 頡苾達度를 (西突厥)可汗으로 冊立하는 사절을 파견하였다.⁴⁴⁾

황제의 입장에서 高句麗의 후방에 위치한 新羅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서역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親唐의인 王의 冊立과 군사행동은 병행되었다. 655년 唐高宗은 金春秋 정권을 돕기 위해 高句麗와 국지전을 일으켰다. 황제의 입장에서 신라에 급진적인 親唐政權이 생존해 있어야 향후 麗濟를 정복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⁴⁵⁾

42) 『舊唐書』 卷198, 西戎傳 吐谷渾.

43) 『舊唐書』 卷198, 西戎傳 龜茲.

44) 『資治通鑑』 卷199, 高宗 永徽 6年(655) 11월 조 “西突厥頡苾達度設數遣使請兵討沙鉢羅可汗. 甲戌, 遣豐州都督元禮臣冊拜頡苾達度設爲可汗禮臣至碎葉城, 沙鉢羅發兵拒之, 不得前. 頡苾達度設部落多爲沙鉢羅所並, 餘眾寡弱, 不爲諸姓所附, 禮臣竟不冊拜而歸.”

45) 660년 唐이 新羅와 함께 百濟를 멸망시켰을 때에도 義慈王의 太子를 교체시켰다고 할 수 있다. 당시 唐을 방문한 경력이 있었던 扶餘隆은 廢太子되어 있었고, 扶餘孝가 太子였다. 唐이 義慈王과 太子 孝를 사로잡은 직후 前太子인 扶餘隆을 太子로 인정했다(윤진석, 「백제멸망기 태자 문제의 재검토」, 『지역과 역사』 29, 2011, 113-142 쪽). 羅唐戰爭이 한창인 674년 唐高宗은 文武王의 官爵을 박탈하고, 그 동생 金仁問을 王으로 세워 신라를 침공하려 했다(『資治通鑑』 卷202, 唐高宗 上元 元年(674))

親唐政策을 주도한 金春秋는 唐을 직접 방문하였고(648), 그곳에 자신의 아들들을 상주시켜 양국을 이어주는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었다.⁴⁶⁾ 唐高宗은 즉위(649) 직후부터 新羅 조정의 상황을 파악해 가고 있었고, 眞德女王에게 聖骨 後嗣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여왕의 사망 시 후계를 두고 新羅에서 분규가 발생할 가능성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⁴⁷⁾

司馬光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654년 윤5월) 황제의 명령(詔)으로 金春秋를 新羅王으로 세웠다.”⁴⁸⁾ 이렇게 급속히 이루어진 황제의 新羅 국왕 冊立은 없었다. 金春秋가 즉위하지 못하고 있는 어중간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唐高宗은 급히 사신을 파견하여 그를 冊立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고 해서 冊立을 받은 金春秋가 곧바로 新羅 왕위에 올랐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唐황제의 冊立으로 金春秋가 聖骨이 아닌 眞骨임에도 왕위계승자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서역의 경우 황제의 冊立을 받았다 해도 내부경쟁자의 반격을 받고 왕위에 오르지 못한 사례도 있었고, 설사 唐의 개입으로 왕위에 즉위했다고 하더라도 반대파에 의해 제거될 수도 있었다. 전자의 경우가 西突厥의 阿史那頡達度 設이고 후자의 경우가 吐谷渾의 慕容順이다. 唐의 왕위계승 개입에 대한 주변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唐이 아무리 강했다고 하더라도 사방에 적이 많아 언제나 절대적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春, 正月, …上大怒, 詔削法敏官爵; 其弟右驍衛員外大將軍・臨海郡公仁問在京師, 立以爲新羅王, 使歸國).

46) 장원섭, 『新羅 삼국통일 연구』, 학연문화사, 2018, 237-238쪽.

47) 배근홍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唐太宗 父子和 군신들이 眞德女王 본인의 각종 상황, 예를 들어 나라를 다스리는 방략, 생활 습관, 개인 취미, 용모 등에 관심이 많았을 것이며, …唐太宗 부자는 역시 새로 즉위한 新羅 眞德女王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응 조치를 채택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拜根興, 「新羅 眞德女王石像 몸통 잔여와 대석 銘文의 발견에 대한 일고찰」, 『新羅史學報』 7, 2006. 26-27쪽.

48) 『資治通鑑』 권199, 高宗 永徽 5年(654) 閏5月 壬辰, “新羅女王金眞德卒, 詔立其弟春秋爲新羅王.”

IV. 麗濟·靺鞨의 新羅침공과 武烈王 踰年即位

654년 가을 冊封使 張文收가 新羅에 체류하고 있을 당시 高句麗와 靺鞨 그리고 百濟가 新羅를 침공하여 33개 城을 함락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金庾信은 군대를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는 新羅 내부 문제를 반영하는 하나의 단서로 여겨진다.

이러한 논의에 앞서 약간의 사료적 고증이 필요하다. 『資治通鑑』 卷199, 高宗 永徽 6年(655) 正月·2月 조를 보자.

(655년 정월) 高句麗, 百濟, 靺鞨이 연합하여 新羅의 북쪽 국경을 공격하고 33개성을 함락시키자 金春秋가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2월에 唐高宗이 營州都督 程名振과 左衛中郎將 蘇定方에게 군사를 일으켜 高句麗를 공격하게 했다.⁴⁹⁾

655년 정월에 新羅사신이 入唐하여 구원을 청했다는 기사가 위의 기록 이외에도 『冊府元龜』·『舊唐書』·『新唐書』·『三國史記』에 보인다. 권덕영에 의하면 新羅가 이러한 군사적 구원을 요청하려면 羅唐간의 路程上 적어도 그보다 3개월여 전에 新羅를 출발해야 한다고 한다. 冊封使 張文收방문에 대한 答使 파견은 654년 9월 정도에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그들이 655년 정월 高句麗 靺鞨 百濟의 침공을 唐에 호소한 新羅 사절이고, 사절단장은 金仁問이라 한다.⁵⁰⁾

655년 2월 新羅의 乞사에 대해 답으로 唐이 高句麗에 쳐들어가 국지전을 일으키는 것을 결정했다. 『冊府元龜』 卷995, 外臣部·交侵 조에는 高句麗가 먼저 新羅를 침공했기 때문에 唐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⁵¹⁾ 高句麗·靺鞨·百濟가 新羅를 침공한 시점은 654년

49) 『資治通鑑』 卷199, 高宗 永徽 6年(655) 正月·2月 조“(正月) 高麗與百濟·靺鞨連兵, 侵新羅北境, 取三十三城; 新羅王春秋遣使求援. 二月 乙醜, 遣營州都督程名振·左衛中郎將蘇定方發兵擊高麗.”

50) 權惠永, 「古代韓中外交史」, 일조각, 1997, 33-34쪽. 한편 권덕영은 김인문이 무열왕 3년(656) 5월(『三國史節要』)에 귀국하였다고 보고 있다.

가을에서 초겨울 사이였을 가능성이 높다. 『三國史記』 권22, 高句麗本紀 보장왕 14년(655) 봄 정월 조에 金富軾은 그 흔적을 남겼다.

“이보다 앞서(先是) 우리(高句麗)가 百濟靺鞨과 더불어 新羅의 북쪽 변경을 침공하여 33개 성을 점령하였는데, 新羅왕 金春秋가 唐나라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2월, 唐나라 고종이 영주 도독 정 명진과 좌위 중랑장 소정방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공격하게 하였다. 여름 5월, 명진 등이 요수를 건너오자, 우리 군사는 상대방 군사가 적은 것을 보고, 성문을 열고 귀단수를 건너가 전투를 벌였다. 명진 등은 우리를 공격하여 크게 이기고, 우리 군사 1천여 명을 죽이고 사로잡았으며, 우리의 외성과 촌락에 불을 지르고 돌아갔다.⁵²⁾

‘先是’는 655년 정월 이전에 高句麗·百濟·靺鞨이 新羅의 33성을 함락시킨 것을 말한다. 654년 후반부터 新羅에 대한 麗濟의 침공이 시작되었고, 655년 1월에야 金春秋의 결사표를 지닌 新羅사신이 長安에 도착했다. 2월에 唐은 高句麗에 대한 공격을 결정하고, 5월에 요하를 건너 高句麗를 공격하였다. 『三國史記』 백제본기를 고려할 때 麗濟靺鞨의 동시다발적인 新羅侵攻을 시작한 달은 (654년) 8월로 보인다.⁵³⁾

金庾信은 본래 외침에 즉각 대응하는 군사 지도자였다. 642년 淵蓋蘇文을 만난 金春秋가 아무 성과 없이 高句麗에서 귀국하자 선덕여왕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金庾信을 押梁州都督으로 삼아 對百濟戰의 책임을 지웠다. 이후 金庾信은 상실된 大耶城 지역을 점차 탈환해가고 있

51) 『冊府元龜』 卷995, 外臣部·交侵 (永徽) 六年(655) 二月 乙丑, “遣營州都督程元振左衛中郎將蘇定方等, 發兵以討高麗, 以侵掠新羅故也. 時新羅王金春秋表言, 高麗與百濟靺鞨相連侵其北境, 已奪三十三城, 乞兵救援, 故遣元振等經略之.”

52) 『三國史記』 권22, 보장왕 14년(655) 정월·2월·5월 조 “先是, 我與百濟靺鞨, 侵新羅北境, 取三十三城, 新羅王金春秋, 遣使於唐求援. 二月, 高宗遣營州都督程名振左衛中郎將蘇定方, 將兵來擊. 夏五月, 程名振等, 渡遼水. 吾人見其兵少, 開門度貴湍水, 逆戰. 名振等奮擊, 大克之, 殺獲千餘人, 焚其外郭及村落而歸.”

53) 『三國史記』 권28, 의자왕 15년(655) 8월조 “十五年, 八月, 王與高句麗靺鞨, 攻破新羅三十餘城. 新羅王金春秋, 遣使朝唐, 表稱 百濟與高句麗靺鞨, 侵我北界, 沒三十餘城.”

었다. 그것은 644년(선덕여왕 13) 金庾信이 蘇判(3位)으로 진급하고 대장군에 임명되어 加兮城을 비롯한 7성을 탈환한데서도 짐작이 가능하다. 이에 여왕지지파들의 입지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⁵⁴⁾

647년 정월 善德이 眞德을 후계자로 정하자 女主는 무능하다고 하면서 上大等 毗曇이 반란을 일으켰고, 金庾信은 그의 군대를 왕경으로 돌렸다. 왕경에서 10일 넘게 시가전이 벌어졌다. 金庾信이 승리하였다.⁵⁵⁾ 그해 정월 17일 반란에 연루된 고위 귀족 30명이 처형되었다. 초유의 政變은 新羅人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이후에도 金庾信은 對百濟戰을 계속 담당하였다. 647년 10월에 百濟 장군 의직이 步騎 3천으로 공격해 오자 金庾信은 그들을 전멸시켰다. 648년 3월 百濟가 腰車 등 10 城을 점령하였다. 金庾信의 반격으로 百濟軍은 패주했고 大梁城(大耶城) 부근에서 궤멸되었다. 捕獲한 장수 8명은 642년 大耶城 전투에서 百濟가 참수한 金品釋, 古陀炤(金春秋 女) 부부의 머리와 교환되었다. 여세를 몰아 嶽城 등 12城을 함락시키고 2만을 목 베고, 9천을 포로로 삼았다. 그 공로로 伊浪, 上州行軍大總管이 되었고, 이어 김해지역의 進禮 등 9城을 공격하여 9천을 목 베고, 6백을 사로잡았다. 649년 8월 百濟 장군 은상이 石吐 등 7城을 점령하였다. 金庾信은 반격하여 군졸 8,980명을 베고 軍馬 1만 필과 수많은 병기를 노획하였다.⁵⁶⁾

649년까지 金庾信의 승리 결과 毗曇의 난을 진압하고 들어선 眞德女王的 정권은 안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654년 8월 이후 高句麗靺鞨과 百濟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으로 북쪽에 위치한 임진강 이남의 新羅의 성들이 차례로 함락되어가고 있었고, 新羅 서쪽의 요새들도 위협에 처했다. 12년 전 大耶城 함락과 같은 위기상황이었다.

54) 주보돈, 『金春秋와 그의 사람들』, 지식산업사, 2018, 77-78쪽.

55) 朱甫墩, 「毗曇의 亂과 善德女王代 政治運營」, 『이기백고회한국사학논총』 上, 일조각, 1994, 215쪽.

그는 선덕이 眞德女王을 후계자로 세우자 상대등 毗曇등이 여기에 반발하여 난을 일으켰다고 보았다. 필자 여기에 동의한다.

56) 『三國史記』 권5, 眞德女王 조; 同書 권28, 의자왕 조; 同書 권41.42, 金庾信전 上·中.

그럼에도 金庾信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왕위계승자 문제를 놓고 반대 세력들과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상태에서 그가 수도를 떠날 수도 없는 입장이었을 수도 있다. 대외적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金春秋 측과 群臣들은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했고, 구심점이 없는 空位 자체가 그러한 분위기를 더욱 조장했을 가능성도 있다.

분명한 것은 群臣들이 金庾信이 군대를 거느리고 반격을 단행하는 그 자체를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가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 것은 좋으나, 혹 승리하여 군대를 이끌고 왕경으로 개선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과거 647년의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

선덕여왕대(638) 高句麗군을 七重城 앞에서 물리친 關川도 움직이지 않았다. 新羅의 내부 정치적 상황이 외침을 받고도 반격을 할 수 없는 막장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때 新羅에 유일하게 원조할 가능성이 있던 唐高宗의 金春秋 冊立을 무시할 수 없다.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新羅가 존망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다.⁵⁷⁾

우리는 여기서 『三國史記』 권5 眞德女王 崩年 조에서 關川이 언급했던 다음의 구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실로 春秋公은 世上을 濟世할 英傑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끝없는 麗濟의 침공으로 존망의 위기 상태에 놓여있는 新羅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地獄 같은 전쟁 상태를 종결시키고 평화를 가져올 인물(英傑)은 金春秋 밖에 없다는 것이다. 金春秋는 642년 高句麗, 647년 倭國, 648년 唐을 방문했다. 위험한 행보였음에도 어느 것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救國의 일념으로 외국을 떠돌았다는 사실은 新羅人들의 뇌리에 남아 있었다.

대외적 위기는 群臣들에게도 심적 하중으로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57) 이때 金庾信이 명망이 있던 關川을 만났던 것으로 생각된다. “永徽 5년(654) 진덕대왕이 죽고 후계자가 없자. 金庾信은 宰相인 關川 伊滄과 ‘謀’하여 伊滄 金春秋를 맞이하여 즉위하게 하니 이가 바로 태종대왕이다(『三國史記』 권42, 金庾信전 中).” 진덕대왕의 후계자가 없었다는 것은 왕위 계승자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고 시간이 가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新羅가 존속하기 원했던 둘은 金春秋를 국왕으로 세우기 위한 謀議를 했다.

金春秋의 왕위 계승을 좌초시키고 그들이 원하는 인물을 왕으로 세워 귀족중심의 연합정치체제를 실현한다고 한들 나라가 망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群臣들은 지금까지 외교를 수행해온 金春秋의 역량과 조국 수호전쟁을 주도한 金庾信의 존재 이유를 재삼 인식했고, 전란의 시대라는 환경에서 귀족중심의 연합정치체제 실현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金春秋의 즉위를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55년 정월 金春秋는 왕위에 올랐고, 그 이후에야 金庾信은 군사적 반격을 시작했다. 655년 9월 金庾信이 百濟에 들어가 도비천성을 함락시켰다고 하고 있다.⁵⁸⁾ 이는 『冊府元龜』 卷995, 外臣部·交侵의 다음 기록과 일치한다.

“顯慶元年(656) 3月 先是 百濟가 군대를 일으켜 新羅를 쳤다. 新羅가 맞서 싸워 이기고, 3千餘人을 죽였다. 至是, 新羅王 金春秋가 사신을 파견하여 勝戰(捷)을 알려왔다.”⁵⁹⁾

百濟가 군대를 일으켜 공격해 왔는데 新羅가 맞서 싸워 이를 격파하여 3千餘 인을 죽였다. 先是는 655년 9월 金庾信의 도비천성 전투에 해당되고, 至是는 656년 3월에 金春秋가 파견한 新羅사신이 唐조정에 도착하여 대승리의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것에 해당된다. 655년 5월 唐軍이 요하를 건너 高句麗를 공격했기에 북쪽이 안정되어 新羅가 百濟에 대해 안정적인 반격을 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고 唐高宗에게 감사를 표했던 것으로 보인다.⁶⁰⁾

654년 金春秋를 新羅국왕으로 책립한 唐高宗은 그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화답하여 655년 高句麗를 치고, 그때 마침 唐을 방문한 倭國 사신에

58) 『三國史記』 권42, 金庾信傳 中 “永徽六年乙卯秋九月, 庾信入百濟, 攻刀比川城克之.”

59) 『冊府元龜』 卷995, 外臣部·交侵 “顯慶元年(656)三月, 先是百濟發兵伐新羅. 新羅拒戰, 破之殺三千餘人. 至是, 新羅王金春秋, 遣使來告捷.”

60) 장원섭, 『新羅 삼국통일 연구』, 학연문화사, 2018, 240-241쪽 참조.

게 新羅를 구원하라는 璽書를 주어 孝德天皇에게 전하게 했다.⁶¹⁾

654년 11월까지 金春秋가 伊滄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은 무리한 즉위를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무력을 앞세운 즉위는 毗曇의 亂과 같은 내란의 재발을 의미한다.⁶²⁾ 무엇보다 麗濟 두 나라가 분규의 소지를 안고 있는 新羅의 왕위 계승을 지켜보고 있었고, 결국 그해 8월부터 대대적인 침공을 하여 新羅 내정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唐高宗의 冊立과 麗濟靺鞨의 동시다발적인 침공은 群臣들이 金春秋를 王位에 추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중국 황제에게 끊임없이 공을 들여왔던 金春秋 만이 대안이었다. 그는 唐高宗을 움직여 唐軍 파병을 이끌어낼 유일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V. 맺음말: 시대의 要請을 읽었던 英傑

630년 東突厥을 제압한 唐太宗은 이후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나갔다. 권력을 皇帝 1인이 움켜진 唐의 침공을 두려워하던 동쪽 국가들로 獨裁體制가 번져갔다. 642년 高句麗에서는 연개소문이 왕과 신하 150명을 죽이고 독재체제를 확립했으며, 같은 해 百濟에서 의자왕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혈족들과 대신들을 추방하고 권력을 한 손에 장악했다. 645년 倭國에서도 中大兄과 中臣鎌族이 蘇我氏 집정체제를 전복하고 집권했다. 唐과 倭國 그리고 高句麗와 百濟에 모두 독재체제 들어섰는데 新羅의 群臣들은 귀족중심의 연합정치체제를 이상으로 삼고 있었다.

61) 徐榮教, 『『新唐書』日本傳에 보이는 唐高宗 令出兵援新羅 璽書의 背景』, 『歷史學報』 237, 2018, 16-20쪽

62) 654년 伊滄 金春秋 기록을 소개하자 여기에 대한 계명대 윤진석 선생의 언급. “647년 선덕여왕이 眞德女王을 후계자로 정하자 毗曇 등이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654년 金春秋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진골귀족들과 타협과 협상을 한 것이 아닐까?”

하지만 전란의 시대 동아시아에 형성된 권력집중의 기류가 新羅만을 비껴 갈 수는 없었다. 647년 상대등 毗曇이 眞德女王的 즉위를 막기 위해 군대를 일으켰다. 그러자 金庾信은 百濟를 방어하기 위해 그에게 주어진 군대를 왕경으로 돌렸고, 毗曇의 귀족군대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眞德女王을 지켜냈다.

그해 정월 30명의 고위귀족이 처형되었고, 그들의 피가 뿌려진 자리 위에 金春秋와 金庾信이라는 실력자가 등장했다. 群臣들은 공공연히 발설은 할 수 없었지만 2인이 이끌고 가는 眞德女王 정권에 반감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654년 3월 眞德女王이 사망하고 새로운 국왕을 세우는 회의가 열렸을 때 그동안 눌러 있었던 것이 표출되었다. 群臣들은 金春秋를 왕위 계승에서 배제하고 關川을 섭정으로 추대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반대자들까지 드러났다. 최악의 상황에서 金春秋는 누가 그의 적이고 경쟁자인지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었다. 여기서 毗曇의 난 진압 후 金春秋와 金庾信이 독재체제를 확립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간파되기도 한다.

關川이 섭정으로 추대된 그 순간에 金春秋는 끝장이 난 사람으로 보였을까. 물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현명하게도 關川이 섭정직을 고사하면서 金春秋와 群臣들 사이에 고조된 긴장을 완화시켰고, 결론이 없는 논의가 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된다.

金春秋는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내란을 방지하기 위해 論議를 막지 않았다. 시간이 걸리고 소모가 따른다고 하더라도 王座는 합법적으로 쟁취해야 했다. 647년 정월 毗曇의 난이 10 여일 만에 정리되어 다행이었지 그렇지 않고 장기화되었다면, 麗濟의 공격으로 新羅는 멸망했을 것이다. 654년 당시에 도 麗濟의 침공 우려는 여전했고, 두 나라는 분규의 소지를 안고 있는 新羅의 왕위계승을 지켜보고 있었다.

金春秋는 물러나 침묵했을 것이다. 정치가에게는 다수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不在를 통해서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밖에서 순풍이 불어왔다. 654년 8월경 唐高宗이 金春秋에게 新羅국왕 임명장을 보내왔다. 왕위계승 분란을 예상한 황제가 선제적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金春秋는 자신이 왕위 계승자라고 스스로 자처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황제의 新羅왕위계승개입을 계기로 金庾信 등은 金春秋의 왕위 계승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거의 동시기에 麗濟靺鞨이 新羅를 사방에서 침공해 왔다. 임진강 이남의 新羅의 성들이 차례로 함락되어가고 있었고, 낙동강 서쪽에 성들도 위험해지기 시작했다. 654년 9월 경 청병사가 唐으로 떠날 때 그 숫자는 33개에 달했다.

존망의 위기 속에서도 群臣들 대부분은 金庾信이 군대를 동원하여 반격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승리하여 그가 군대를 이끌고 왕경으로 개선한다면 647년 정월의 상황(毗曇의 난)이 재현될 수도 있었다. 新羅는 외침을 받고도 곧장 반격에 나설 수 없는 자기합정에 빠졌다. 국내 정치상황이 외침에 대한 저항력을 갉아먹자 金庾信이 關川을 만났고, 둘은 대책을 논의할 했을 것으로 보인다.

空位를 틈탄 麗濟靺鞨의 대대적인 침공은 新羅 조정의 群臣들에게도 불안감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金春秋와 金庾信의 정국주도가 외침의 위협보다 낮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때 群臣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關川이 현재의 전쟁 상태를 종결시키고 평화를 가져올 英傑은 金春秋 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귀족중심의 연합정치체제를 실현한다고 한들 나라가 망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멀리 내다볼 여유도 없었다. 당장 눈앞에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란의 시대에 귀족중심의 연합정치체제는 국가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群臣들도 인정하게 되었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전에 金春秋의 왕위 계승을 적극적으로 가로막은 자들마저도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게 되었을 것이다. 외침으로 나라가 위험한 상태에 놓이자 귀족들은 金春秋와 金庾信의 능력을 원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654년 末에 가서 金春秋의 왕위 계승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1월 초 倭國으로부터 효덕천황의 부음을 듣고 온 倭使가 新羅 조정에 도착하여 伊滄 金春秋를 만났다. 唐나라도 倭國도 모두 그를 찾았고, 그의 이름으로 請兵使를 보내거나 弔使를 파견해야 했다. 그것은 그때까지 金春秋가 中日에 양보를 하면서도 약속을 준수했던 국제적 신용이 있기 때문이었다.

『三國史記』는 金春秋가 왕위 추대를 받았지만 3번이나 거절했고 마지 못해 즉위했다고 하고 있다.⁶³⁾ 지금까지 우리는 이 기록을 관례적인 三讓으로 보았던 경향이 강하다. 고대 중국에서 제후에 오르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처럼 세 번을 양보한다는 三讓之德을 지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金春秋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金春秋는 世上 끝까지 가본 사람이었다. 그러한 그가 한번 정도의 왕위추대를 명예회복으로 여기고 자신을 왕위 계승에서 배제시킨 群臣들에게로 곧장 돌아갈 凡夫로는 보이지 않는다. 金庾信과 함께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운명을 걸고 외교·전쟁이라는 거룩한 임무를 수행했던 그가 어중간한 것으로 만족할 수도 없었고, 新羅왕실을 현실적으로 떠받치고 있던 그가 왕위를 개인의 허영으로 보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만일 그가 한 번의 왕위 추대로 곧장 群臣들에게 안겼다면, 왕이 되어서도 그들과 다시 고통스러운 언쟁을 해야 했을 것이다. 金春秋는 대다수 群臣들의 공개적 반대로 왕위 계승에서 배제된 상흔이 있기 때문에 즉위하기 이전에 반대자들에게 공개적인 항복을 받아내야 했다. 그는 권위의 승리를 원했을 것이다.

이어 2번 3번에 걸친 왕위 추대를 그는 거절했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63) 박순교, 『金春秋, 외교의 승부사』, 푸른역사, 2006, 425쪽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金春秋는 마지막 분란의 불씨까지 철저히 차단한 다음 등극해야겠다고 여겼지만 그래도 등극 이후 불씨가 되살아날 여지는 남아 있는 법이었다. 金春秋는 세 번씩이나 왕위를 거절함으로써 앞서 자신을 견제하려한 세력을 철저히 굴복시켜 더욱 많은 정치적 양보를 받아내는 물론 철저히 그들의 행동을 경고하려는 뜻도 가지고 있었다. 동시에 金春秋의 즉위가 사실상 金庾信의 무력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변칙적인 것이었던 만큼 세 번씩이나 왕위를 사양하는 절차는 형식상으로도 필요한 과정이었다.”

있었던 그 제안들을 연이어 물렸다는 것은 이전의 적대자들에게 한걸음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가 왕위에 오른다면 자신의 의지만이 타당한 것이 되어야 했다. 그가 향후 치리야만 될 聖戰에서 群臣들은 충실한 부하가 되어야 했다.

그는 群臣들이 진정으로 승복할 때까지 끝까지 버티어서 왕위 계승 후보자로서 문제가 있었던 자신의 즉위를 완벽하게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야 했다. 전란으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정통성 문제로 인한 내부 분란의 불씨는 제거해야 했던 것이다.

金春秋의 私邸와 群臣들이 모인 廳舍 사이를 왕위추대 사절과 급사들 분주하게 오갔고, 비로소 金春秋는 새로운 권리로 가득 채워진 新國王의 자리를 받아들이겠다고 동의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655년 정월 왕궁에서 群臣들이 도열한 가운데 국왕즉위의례를 마친 金春秋는 伊滄 금강을 上大等으로, 波珍滄 문충을 中侍로 하는 내각을 발진시켰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인 3월에 장남 법민을 太子로 세워 후계를 확정했을 뿐만 아니라 3남 문왕을 伊滄, 4남 노차를 海滄, 5남 인태를 角滄, 6남 지경과 7남 개원을 각각 伊滄으로 파격 진급시켜 新羅 수뇌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독단적 인사를 단행했다. 또한 10월 무열왕은 자신의 딸(智照)을 군부의 수장인 金庾信에게 시집보내 둘의 관계를 再保證했다. 만일 金春秋가 三讓의 과정을 거치면서 群臣들에게 항복을 받아내지 않았다면 그들이 분명히 반대했을 일들이었다.

655년 정월 新羅를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에 독재체제가 들어섰다. 통일전쟁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 이 논문은 2019년 5월 8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6월 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冊府元龜』, 『唐會要』, 『舊唐書』, 『資治通鑑』, 『日本書紀』, 『三國史記』
坂本太郎 外 校注訳, 『日本書紀』 下 岩波書店 1965
小島憲之 外 校注訳 『日本書紀』 3, 小學館, 1998
연민수 外, 『역주 일본서기』 3, 동북아역사재단 2014
김현구·박현숙·우재병·이재석 공저,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 Ⅲ, 일지사, 2004
- 權憲永, 『古代韓中外交史』, 일조각, 1997
박순교, 『金春秋, 외교의 승부사』, 푸른역사, 2006
山尾幸久, 『古代の朝日關係』, 塙書房 1989
장원섭, 『新羅 삼국통일 연구』, 학연문화사, 2018
주보돈, 『金春秋와 그의 사람들』, 지식산업사, 2018
韓祐勳, 『韓國通史』, 乙酉文化史, 1969
- 金瑛河, 「新羅 中古期の 政治過程試論」, 『泰東古典研究』 4, 1988
徐榮教, 「『新唐書』 日本傳에 보이는 唐高宗 令出兵援新羅 璽書의 背景」, 『歷史學報』 237, 2018
- 윤선태, 「752년 대일교역과 買新羅物解」, 『역사와 현실』 24, 1997
윤진석, 「新羅 至都盧葛文王之 ‘攝政」, 『韓國古代史研究』 55, 2009
윤진석, 「백제멸망기 ‘태자’ 문제의 재검토」 『지역과 역사』 29, 2011
윤진석, 「新羅 중고기 왕위 계승과 攝政」, 『大丘史學』 126, 2017
이강래, 「『三國史記』와 『삼국유사』의 왕대력 비교 연구」, 『한국사학보』 21, 2005,
李基東, 「제3장 貴族國家의 形成과 發展」, 『韓國史講座』 古代編, 일조각, 1982
李基白, 「上大等考」, 『歷史學報』 19, 1962 : 『新羅 政治社會史 研究』, 일조각, 1974
전덕재, 「8세기 新羅의 대일외교와 동아시아 인식」, 『日本學研究』 44輯, 단국대, 2015
朱甫敬, 「毗曇의 亂과 善德女王代 政治運營」, 『이기백고회한국사학논총』 上, 일조각, 1994
朱甫敬, 「迎日冷水里新羅碑에 대한 基礎的 檢討」, 『新羅文化』 6, 1989
朱甫敬, 「『日本書紀』의 편찬배경과 任那日本府設의 成立」, 『韓國古代史研究』 15, 1999
川崎晃, 「藤原不比等-その前半生について-」, 『法制と社会の古代史』,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5
崔熙俊, 「新羅外賓迎接儀禮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8

Abstract

When Silla King Kim Chun-chu was crowned.

Seo, Young-kyo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ancient Korean record (*Samkuksagi*) of Kim Chun-chu's succession to the throne and the ancient Japanese record(*Nihonsoki*). The former is 654 and the latter is 655. But the same Korean record shows that Kim Chun-chu became king and formed a cabinet in 655. The previous Silla kings formed a cabinet just in the year they ascended, and only Kim Chun-chu did so in 655, the second year on the throne. The timing of the Cabinet formation coincides with the Korean and Japanese records.

In Japanese records, the information that Kim Chun-chu was a nobleman, not a king, in 654 suggests that there was a succession feud in Silla. That year, Goguryeo and Baekje, which were watching the internal feud of Silla, launched a massive attack. Silla was in danger. Then Silla nobles built Kim Chun-chu as king. Kim Chun-chu, who is close to the Chinese emperor, was the only one who could call in Chinese Troop. In January 655, Kim Chun-chu was crowned.

keywords

Kim-chunchoo, Kim-youshin, Alcheon, Emperor Koatsung,
Koutoku -tennou, Jitou-tennou

